2024. 12. 16(월) | Vol. 2024-180호

일일 국제 기후·에너지 동향

신재생에너지

◆ 독일 전력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중 54%로 최고치 기록(주독일대사관)

○ 독일의 금년 총 전력 소비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54%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.

- 독일 연방환경청(UBA)은 2023년에도 이미 52.5%(2022년: 46.3%)라는 기록적인 수치에 도달했으나 금년에는 이보다 1.5% 더 상승했다고 하면서, 독일 최초로 전력 소비의 절반 이상이 재생에너지로 충당되었다고 발표
- 주로 풍력 및 태양에너지 등 재생에너지원을 통한 전력 생산은 올해 약 285테라와트시로 전년 대비 4%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두 에너지 발전이 독일 내 재생가능 전력의 3/4 이상을 차지
- 그 외 바이오매스, 수력발전, 지열 시스템 등 재생에너지원을 통한 전력 생산량은 전년 대비 2% 증가

○ 이와 관련, 메스너(Dirk Messner) UBA 청장은 전력 생산의 긍정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재생가능 에너지원 확대에 더 박차를 가해야 하며, 2030년 전까지 전력 수요의 80%를 재생에너지원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지적함.

- 또한 난방 및 운송 부분의 전기화 증가로 전기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

광물자원

◆ 독일 총리·세르비아 대통령, 작센주 리튬 매장지 방문(주독일대사관)

○ 숄츠 독일 총리와 부치치 세르비아 대통령은 12.10(화)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리튬 매장지가 있는 독일 작센주 프라이베르크을 방문하고 지속가능한 리튬 채굴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음.

※ 독일-체코 국경 지역에 있는 리튬은 세르비아 매장량보다 훨씬 적으며, 동 국경 지역 총매장량 중 1/30이 독일 영토에 해당

- 독일 리튬생산업체 Zinnwald Lithium社는 연간 100만개 전기차 배터리에 충분한 리튬 15,000톤을 생산할 계획이며, 2028년 혹은 2029년부터 채굴을 개시할 예정

- 숄츠 총리는 여러 핵심 산업에 리튬과 같은 중요한 원자재가 필요하며, 기후와 환경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채굴해야 한다고 언급
- 부치치 대통령은 동 방문을 통해 세르비아 내 리튬 채굴 반대자들에게 독일도 리튬을 채굴할 계획이며, 환경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채굴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

○ 독일과 EU는 지금까지 주로 호주, 칠레, 중국에서 리튬을 수입했으며, 특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맥락에서 세르비아 Jadar Valley의 리튬 채굴은 숄츠 총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짐.

- 올해 7월 EU-세르비아 간 리튬채굴협약이 체결되었으며, 당시 서명식에 참석한 숄츠 총리는 독일과 유럽은 중국 의존도를 줄여야 하며, 공급망에 탄력적인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. 끝.

외교부 기후변화외교과 (기후에너지협력센터)
T. 02-2100-8474(8475)
E. cecc@mofa.go.kr
외교부 기후에너지협력센터